

레슬리 알렌 박사, 애가, 세션 3, 애가 1:1-11

© 2024 레슬리 앨런과 테드 힐데브란트

애가서에 대한 강의를 하는 Dr. Leslie Allen입니다. 3부 애가 1:1-11 입니다.

여기 애가서에 관한 세 번째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애가의 배경을 살펴보고 애가의 세계, 그 뒤에 있는 세계, 애가가 선택하고 사용하는 전통에 대해 매우 많이 생각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1장과 1절에 이르렀고, 그 장의 전반부에 도달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1절부터 11절까지 공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해야 할 몇 가지 배경 작업이 있지만 텍스트의 맥락에서 이를 수행하겠습니다. 이제 시작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애가서는 슬픔에 대한 노력을 보여주는 책이며 슬픔에 잠긴 사람과 간병인 모두에게 매우 귀중한 독서입니다. 슬픔을 헤쳐나가는 여정을 위한 눈물, 대화, 시간의 의제를 제시합니다.

이 책은 유다 공동체가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에 따른 국가적 재앙을 받아들이도록 돕기 위해 행해진 예배의 대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도가 수행하는 특정 기능이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충격을 받은 생존자들이 듣는 동안 동료 고통받는 사람은 애도에 대한 유대 전통을 활용하여 그들을 멘토링하고 슬픔, 죄책감, 고뇌의 길과 궤적을 함께 엮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중이 스스로 이러한 궤적을 분명히 표현하도록 격려합니다. 이를 위해 그는 멸망당하는 예루살렘 장소의 의인화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대표하는 인물인 시온을 소개하며, 시온을 그들의 롤모델로 삼는다.

그런 다음 이 멘토인 그 자신이 상처받은 치유자의 역할을 맡아 자신의 상처와 그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간증하면서 신뢰를 얻습니다. 그의 멘토링의 핵심 부분은 재앙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에게 호소하면서

그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 섭리 계획을 식별합니다. 처음에는 부정적이지만 결국에는 긍정적입니다.

마침내 회중은 슬픔의 전환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혼이 담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자신을 재헌신하면서 슬픔을 말로 표현합니다. 인간의 슬픔에는 무한한 다양성이 있지만, 슬픔에 잠긴 사람들은 애가에서 환영받는 동료감을 찾을 것이며, 주변 사람들은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면서 공감을 나타내도록 격려를 받을 것입니다.

나는 본문을 읽으면서 새로운 Revised Standard Version을 사용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New International Version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1장에서 우리는 첫 번째 쌍성체를 발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성경의 글자들을 훑어가며 알파벳 순으로 나열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글자이기 때문에 22절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멘토가 해야 할 일은 회중이 그 공동체가 경험한 손실의 현실을 직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현실을 똑바로 직시해야 하며, 이러한 손실을 고통스럽게 기억하고 일어난 일을 흡수하고 받아들여야 할 필요성을 표현함으로써 이 현실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과정입니다.

멘토이기도 한 내레이터는 첫 번째 장에서 커뮤니티가 겪은 손실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슬픔의 표현입니다. 나는 애가서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세 가지 길, 즉 세 가지 궤적이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빠르게 언급했습니다.

죄책감이 있고, 슬픔이 있고, 죄책감이 있고, 불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행하면서 그것들이 모두 다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은 다시 해시되고 계속해서 꺼내져야 합니다.

슬픔에는 논리가 없습니다. 슬픔의 일부로 나타나는 다양한 측면 사이를 이리저리 번갈아 가며 나타냅니다. 제가 찾은 훌륭한 자료는 Gerald Sitzer가 쓴 A Grace Disguised라는 책입니다.

그는 교통사고를 당하는 끔찍한 경험을 했고, 그 결과 어머니, 아버지, 아내, 딸이 사망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마지막에 그의 아들들과 함께 남겨졌고 그들은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슬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가 그 슬픔을 어떻게 겪었는지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깨어 있는 꿈을 꾸었고 그의 마음은 어둠과 지는 해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는 지는 해를 붙잡고 그 뜨거운 따뜻함과 빛 속에 머물려고 필사적으로 서쪽으로 달려가고 있었지만 나는 경주에서 지는 것. 태양은 나를 지평선으로 밀어내고 있었고 곧 사라졌습니다.

나는 갑자기 황혼 속에 있는 나를 발견했다. 지친 나는 달리기를 멈추고 불길한 예감으로 어깨 너머로 동쪽을 바라보았다. 나는 거대한 어둠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어둠에 겁이 났다. 나는 태양을 쫓아 계속 달리고 싶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태양은 이미 나보다 빠르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희망을 잃고 땅바닥에 쓰러져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 순간 나는 영원히 어둠 속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 영혼에 절대적인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여동생 다이앤은 누구든지 태양에 도달하는 가장 빠른 길을 말했고, 낮의 빛은 지는 해를 쫓아 서쪽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태양에 이를 때까지 어둠 속으로 뛰어들면서 동쪽으로 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돋이.

그 순간 나는 내 인생이 이끌 방향을 선택할 힘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나에게 열려 있는 유일한 선택이 마지막에서 도망치거나 최선을 다해 직면하는 것뿐이었더라도 말입니다. 나는 어둠이 불가피하고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어둠을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둠 속으로 걸어가기로 결심했고, 상실의 경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여행으로 데려가도록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떻게든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내 고통으로 인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당시에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몰랐지만 비틀거리며 고통을 향해 방향을 돌리고 상실에 굴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애가에서 당신은 어둠 속으로 향하고 있으며 그것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고 있으며, 멘토는 그 어둠 너머에는 3장에서 이야기할 빛이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고 칭찬하지만, 그때까지 그는 손실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술자를 일반적으로 누가 주 연설자라고 부르는데, 단순히 기자나 관찰자로서가 아니라 동료 유대교인으로서 그 슬픔에 함께 고통받는 누군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도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왕정이 무너지고 만물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지만 멘토이기도 하다.

그는 말하기 훈련을 받고 이스라엘 전통에 대한 훈련을 받은 제사장이었던 것으로 의심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여 회중과 함께 어둠 속으로 뛰어 들고 그들을 어둠 속으로 인도하고 결국 희망적으로 희미한 빛 속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빛의. 이 첫 번째 시는 깔끔하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9절에 이르면 시온이라는 인물이 무례하게 한 줄로 끼어 들고, 11절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끼어 들고, 그때부터 멘토가 고개를 내밀고, 두 번째는 그 장의 일부는 시온이 12절부터 22절까지 말해야 하는 것과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이 장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절이라고 부르는 연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세 줄로 된 연입니다. 알파벳 순서대로 첫 번째 줄에. 이상하게도 7절은 네 줄로 되어 있는데 2장에서도 같은 불일치가 발견되는데 히브리어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완벽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특징은 이 첫 번째 장의 대부분과 책의 대부분, 사실 처음 네 장을 지배하는 특정 운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림프 운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한 줄에 세 개의 악센트 음절이 있고, 줄의 첫 번째 절반에는 세 개의 악센트 음절이 있고, 두 번째 절반에는 또 다른 세 개의 음절이 없습니다. 2음절만 있어서 좀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절뚝거리는 미터라고 불리는 것이 세속적인 장례 애도의 특징입니다.

이 절름발이 미터는 매우 실망스럽고 여러분이 바라던 세 음절 대신 마지막 두 음절의 악센트가 있는 사운드에 절망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언급했던 이 시에 대해 우리가 알아차린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이 단어는 어떻게. 제가 슬픔의 전례라고 부르는 해설에서 그게 얼마나 끔찍하고 조금 서투른지 번역했지만, 비명이나 비명이라는 특정 단어의 감정적인 측면을 드러냈기 때문에 감정이 표현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거기.

사람들은 1장의 논리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흥분된 외침에는 감정뿐만 아니라 이성과 공포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우리는 여기서 장례 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온에 관한 기도로의 전환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장례 애도의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는 반전과 대비가 있고, 상실에 대한 추모가 있고, 좋았던 것은 이제 상실된다는 것이다.

좋았던 것이 이제는 나빠졌거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매우 특징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1장 전체에는 다양한 손실에 대한 설명이 있으며 모든 것이 더 나쁘게 변한 좋았던 옛날과 나쁜 현재 사이에 대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위기 경험의 매우 특징적입니다. 유족은 내가 자신을 너무 그리워하거나 그녀를 너무 그리워하고 무엇을 잃었는지 잘 알고 있다고 말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여기에 손실 목록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전반부는 인적 손실이나 사회적 손실, 잃어버린 사람들의 목록입니다. 반면 저는 전반부를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1에서 6은 인적 또는 사회적 손실이고, 7에서 11은 물질적 손실, 즉 물질적 손실입니다. 이것이 전반부의 두 측면 사이의 구분입니다. 이제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 본문에서 전통을 접하게 되므로 여기서 다시 전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 전통은 전체적으로 1절부터 11절까지와 관련이 있고 두 번째 전통은 1절부터 6절까지만 관련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그것이 우리가 시온 신학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시편에 아주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작은 그룹인데, 연속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시온의 노래라고 부르는 작은 시편 그룹이 있는데, 시편 46편, 48편, 76편이 있습니다. 이 시편들은 예루살렘이 얼마나 멋진지, 하나님의 성인지, 하나님께서 영원히 복을 주시며 영원히 지키실 것을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멋진 시편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온신학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종의 찬송입니다. 시온에서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며, 우리는 다른 책에서도 그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이사야서의 포로 이전 부분인 1장부터 39장까지에서 앗수르인들이 보존한 시온의 축하 행사를 발견합니다.

히스기야 통치 701년에는 예루살렘이 앗수르에게 함락될 것처럼 보였고 실제로 산헤립에 의해 봉쇄되었지만 그 후 모든 것이 끝났고 앗수르인들은 후퇴했으며 이사야에게 이것은 시온 신학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이사야에는 이제 유배된 일련의 본문이 부활합니다. 시온 신학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암묵적인 인정이 있지만 미래에 성공할 것이라는 약속도 있습니다.

이사야 46장의 포로 이후 부분에는 시온의 전통이 다시 세워질 것을 기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포로 기간의 시작에 와 있으며 시온의 전통은 사라졌고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결국 그곳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도시가 아니며 결국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돌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그것을 바벨론에게 넘겨주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 놀라운 시온 신학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암묵적으로 1절부터 11절까지는 시온 신학의 주장을 가로막고 그들이 효과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일하지 않았습니다. 회중 중에는 그것이 효과가 있었어야 한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시온에는 이런 믿음이 있었고, 이런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앞서 슬픔의 한 부분은 자신의 기대를 바꿔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기대는 효과가 없었으며 결국에는 효과가 있을 또 다른 기대 세트와 자신을 잘못된 길로 이끈 가치 대신에 또 다른 가치 세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습니다.

작동하지 않는 신념 체계의 부분을 넘어서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를 뛰어넘고 새로운 기대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멘토가 회중에게 제시하는 새로운 기대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은 3장에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사람은 어둠을 헤쳐나가고 있으며 상실에 대해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물질적 손실에 앞서 사회적 손실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접하게 되는 또 다른 전제가 있습니다: 연대의 원칙입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말하는 집단주의 국가가 있는 반면 나를 말하는 비집단주의 국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양에서는 철저히 개인화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개인이고, 하나의 사회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귀찮고, 나 자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는 집단주의적인 관점이 더 많습니다.

당신은 커뮤니티에 속해 있습니다. 당신은 가족에 속합니다. 당신은 클랜에 속해 있습니다.

당신은 부족에 속해 있습니다. 당신은 국가에 속해 있습니다. 다른 국가와 동맹을 맺으세요.

그리고 당신은 이 모든 연대에 집착합니다. 이것이 인생을 의미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개인으로서 이러한 집단주의적 감정에 자신을 맞추게 됩니다.

따라서 사회적 손실에 대한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에 참여하면 삶의 많은 개인적 측면, 사회적 측면, 인간적 측면, 주변의 사회적 측면. 1절. 한때 사람들로 가득 차 있던 도시는 얼마나 외로운가.

외로움은 1절부터 6절까지의 키워드입니다. 사회적 인간 손실. 외로운.

외로움은 매우 비극적인 단어입니다. 그것은 모든 문명에 해당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살고 있는 개별 문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유다에게는 외로움이 특히 압도적이었습니다.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외로움을 불평하는 시편, 개인의 애도 시편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단어가 도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애도 행위로서 앓는 자세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시작부터 의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로 불렸습니다.

그녀는 장을 진행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과부에 비유합니다. 이 의인화에서는 시온이 여자로 언급됩니다.

최근 애가를 가르치고 있는데 쉬는 시간에 한 여성이 다가와 왜 시온을 여성으로 의인화했는지 물었습니다. 왜 남자가 아니지? 아, 내가 말했잖아, 그걸 설명할 생각은 없었는데.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나는 다음 시간에 수업 시간에 그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히브리어에는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남성적이거나 여성적이어야 합니다. 중성은 없습니다.

두 성별을 모두 처리해야 합니다. 도시라는 단어는 실제로 여성적인 단어입니다. 시온과 시온, 예루살렘 같은 도시의 이름은 전통적으로 여성으로 간주됩니다.

여성 명사들이죠. 여성 명사. 그래서 의인화하고 싶을 때 자연스럽게 여자가 떠오르는데요.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이 있지만 계속 진행하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기 텅 빈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의 수도였습니다.

586년 이후에는 더 이상 수도가 아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지파에 속한 미스바입니다. 그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로운 수도였습니다.

유다의 수도로서 사람들이 가득한 대도시였지만,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과부와 비교됩니다. 그녀는 얼마나 과부처럼 되었습니까?

그녀는 이방인들 중에 위대했습니다. 그리고 과부 여러분, 결혼 용어로 말하면 일부 주석가들은 특히 선지자들의 다른 곳에서 언약 관계가 결혼으로 묘사되었고 야훼는 남편이었다는 사실을 비교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온은 남편을 잃었습니다.

야훼, 하느님. 그러나 아니요, 그것은 사회화된 사회학적 비교에 가깝습니다. 과부들은 유대 사회와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들을 뒷받침할 남자 없이 쇠퇴하고 버림받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룯기는 이에 대한 주석입니다. 두 과부는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었고, 남자의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탈출구는 어린 아이가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학적 참고자료입니다. 과부는 종종 자선이 필요한 궁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한때 열방 중에 위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에는 작은 나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선두 국가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593년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공격이 두려워서였습니다. 그래서 작은 나라들이 함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서 만났나요? 예루살렘에서.

다른 모든 나라들은 이번 국제회의가 열렸던 예루살렘에 사신을 보냈는데, 예레미야 27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에서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바벨론 제국의 약속 가운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때 지방의 공주였던 그녀. 그렇습니다. 지방들 사이에서 유다의 중요성은 자신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강제노동자.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게 된 사람. 그래서 여기에는 상실의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상실의 첫 번째 표현입니다. 변장한 은혜인 Sitzer에게로 돌아가서 그는 상실에 대해 언급합니다. 상실은 마치 광활한 무(無)의 바다를 향해하는 것처럼 황량한 현재를 만든다.

상실을 겪는 사람들은 자신이 바라는 과거와 희망하는 미래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익숙한 과거의 항구로 돌아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싶어한다. 좋은 건강, 행복한 인간관계, 안전한 직업.

아니면 그들은 계속해서 향해하여 자신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을 것을 약속하는 의미 있는 미래를 발견하고 싶어합니다. 성공적인 수술, 두 번째 결혼, 더 나은 직업. 오히려 그들은 의미가 없는 황량한 현재에 살고 있음을 깨닫는다.

과거의 기억은 그들이 잃어버린 것을 상기시켜줄 뿐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먼 미지의 것으로 그들을 조롱할 뿐입니다. 내가 발견한 것처럼 과거의 추억은 기쁨을 가져다 주지만, 추억이 고통을 주기보다는 위로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인 1절은 상실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은 특별해질 것입니다. 손실의 유형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2절은 정치적 동맹자들의 손실을 반영합니다.

이 의인화에서는 감탄사, 감정적인 감탄사로 시작됩니다. 그녀는 밤에 뺨에 눈물을 흘리며 몹시 울었습니다. 시각화할 수 있는 것.

그녀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그녀를 위로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모두 그녀를 배신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93년에 예레미야 27장에서 히스기야 왕 아래 회의에 모인 국가들은 정복당했거나 유일한 선택으로 적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유다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위로나 도움을 줄 동맹국 없이 홀로 남겨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모두 자의로든 무력으로든 바빌론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위로도 없고 위로도 없습니다. 1장 전체에는 편안함이 부족하다는 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외로움의 한 측면입니다. 그것은 결여된 결속력의 측면이며, 슬픔에는 욕기 2장에서 욕의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강조하고 자신의 편을 들고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 예루살렘은 고립되어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동료 유대 사람들의 포로 생활이 나옵니다. 내가 말했듯이 이 책은 유다에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 쓴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친구와 친척 중 많은 사람들이 북쪽, 동쪽, 남쪽으로 긴 여행을 떠나 바빌론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유다는 고통과 가혹한 노역으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열국 가운데 살면서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메소포타미아에 새로운 국가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녀를 추격하는 자들은 그녀가 괴로워하는 가운데 모두 그녀를 따라잡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의 마지막 줄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여기로 오세요. 탈출할 수 없습니다.

행진에 참여하세요. 당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가서 집을 떠나야 합니다.

3절의 두 번째 줄에는 그녀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RSV와 NIV는 문자 그대로 앉아 있고 애도하는 자세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포로들은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그들도, 남겨진 이들도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쉴 곳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이것이 신명기 28장과 65절을 의도적으로 회상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나라가 큰 고통을 당하고 고국에서 추방될 끔찍한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쉴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힌트입니다.

신명기 28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마도 그 장에는 우리가 이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연에는 종교적 외로움이 있는데, 이는 외로움과 종교적 의미를 갖습니다.

시온은 일 년에 세 번씩 축제가 열리는 곳이었고 사람들은 모여들곤 했습니다. 온 땅에서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예배를 위해 회중이 폐허가 된 성전 뜰에 모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우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시온으로 가는 길은 명절에 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애통합니다. 그리고 순례자들이 택한 길을 의인화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성문이 황폐하고 폐허가 되었느니라. 그들은 무너졌습니다. 그래요, 저 성문들도요. 하지만 그들도 애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 역시 애도의 말입니다. 그녀의 성직자들은 신음합니다. 위대한 찬송으로 축제를 진행하던 이들이 이제는 탄식하고 있다.

그녀의 어린 소녀들은 슬퍼하고 그녀의 운명은 쓰라립니다. 어린 소녀들은 여기 이 사진에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여성은 종교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강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 정도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68편과 24절, 25절에는 성전 예배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전에 순례자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합류하는 행렬에 대해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68편 24절 하나님이며

옛적에 주의 장엄한 행차를 보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을 보면 노래하는 자들이 앞에 있고 악사가 그 가운데에 있으며 소고를 치는 소녀들이 있도다.

그래서 저는 구세군 소녀들이 탬버린을 연주하며 이 행렬에 동참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적어도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들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 어린 소녀들. 그들은 음악적 전문 지식을 얻을 기회를 잃었습니다.

시온에 남겨진 어린 소녀들은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발견한 이 손실에는 종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이제 스위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연의 중간에서 그녀의 적들이 주인이 되었고, 그녀의 적들이 반영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녀의 수많은 범법 때문에 그녀를 고통스럽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자녀들은 원수 앞에 포로가 되어 떠났습니다. 이 스탠자의 첫 번째와 세 번째 줄에서 우리는 거기에 손실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녀의 적들은 주인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은 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신명기의 메아리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44절은 원수들이 머리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을 언급하는 힌트가 다시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 줄에는 그녀의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들 역시 포로가 되어 떠난다. 이는 신명기 28:41을 의도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슬픔에는 비극적인 의미가 있음을 다시 한 번 암시합니다.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간선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녀의 수많은 범법으로 인해 그녀에게

고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NIV에 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둘 다 적합하지 않습니다.

죄는 일반적인 단어이다. 범법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반역 행위이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 그리고 거기에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멸망에는 느부갓네살에 대한 정치적 반역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형벌을 받아야 할 하나님 자신에 대한 반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 용어를 신학적으로 사용하여 반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의미, 재앙에 대한 해석은 신명기 28장에 기대어 여기에 당신이 손실을 고려하지 않은 슬프고 비극적인 기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픔의 궤적을 겪었습니다. 이 슬픔의 길은 상실을 기억하며 그러나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 슬픔과 함께 현장에 다가오는 죄책감의 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 유형의 손실로 넘어갑니다. 나는 이것이 예루살렘 전통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왕정의 상실, 다윗왕의 전통의 상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딸 시온에게서 그 모든 위엄이 떠났느니라.

나는 그것이 새로운 RSV에서 좋은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는 위엄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인 이 단어가 왕족의 상황에서 자주 사용된다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그 방백들은 풀을 찾지 못하는 수사슴처럼 되었고도다.

그들은 추격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다. 왕자는 최고의 번역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왕실의 일원이 아닌 왕실의 관리들인데, 흔히 왕자를 뜻하는 것은 왕실의 관리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궁전과 전체 군주제 체제의 메아리이지만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줄에서 처음으로 딸 시온, 딸 시온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딸이라는 단어는 단지 여성의 의인화, 즉 시온이 여성으로 여겨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수도, 도시, 국가가 의인화되면 여성으로 의인화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해 딸이라는 단어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우 복잡합니다. 이 처음 6개의 구절에는 여기에 장례 애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명이나 비명으로 소개되는 세속적 전통입니다. Echa!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대조, 그리고 이 절뚝거리는 미터, 3 더하기 2. 그렇다, 세속적인 장례 애도인데, 말하자면 종교가 뒷문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의미를 찾으려고 애쓰다 보면, 심지어 이 장례식 애도에서도 의미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학적 관점이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혼합이 진행되고 창조되고 있습니다. 오래된 기대는 사라졌고, 마음에 두지 않았던 기대가 하나 있었기 때문이다.

전통의 일부인 신명기 28장은 이스라엘이 언약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때의 운명을 말합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와 해석이 포함되며 여기에는 실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히 당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설명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표현되는 수많은 슬픔 과정, 슬픔 행동을 경험했습니다. 1절의 애도의식과 앓음과 눈물, 2절의 눈물, 그리고 4절의 애통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손실에 대한 검토가 있습니다. 손실에는 매우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를 찾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상실을 넘어서는 슬픔 과정의 일부는 가능하다면 재난을 이해하기 위해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련의 인용문인 신명기 28장과 5절 중간에 처음으로 철자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 신념 체계가 바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여야 하는 비극적인 신념 체계입니다. 우리는 신명기 28장 참조문에서 제안되고 5절 중간에 언급되는 상실에 대한 슬픔과 죄책감이라는 두 가지 궤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시온에 대한 문학적 초점에서 의인화된 인물로서 시온은 너무나 많은 물리적 파괴를 겪었던 장소 자체를 상징합니다. 이는 또한 회중, 즉 회중이 어떠한 해야 하는지, 역할 모델, 회중이 재난에서 경험한 것을 나타냅니다. 앞서 말했듯이 시온은 회중의 롤 모델로 기능할 것이며, 시온은 회중이 차례로 응답해야 하는 방식으로 응답합니다.

그래서 7절부터 11절까지에서 우리는 물질적인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단번에 해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 손실, 물질적인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일부, 즉 우리 자신의 연장선이 되는 물질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강도를 당하고 몇 가지 물건을 가져가기만 하면 '아, 그런 것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것? 그리고 사실, 도둑이 자신의 일부를 잃어버리고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는 것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물질적 손실에 대해 세 번이나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는 귀한 것들, 옛날에 그 여자의 모든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또 다시 원수들이 모든 귀한 것에 손을 뻗습니다. 그리고 NRSV는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왜냐하면 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11절에서 보물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보물을 음식과 교환합니다. NIV는 이 세 가지에 모두에 대한 보물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물질적 손실의 세 가지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7절, 예루살렘은 기억합니다.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것은 항상 속보입니다.

그녀가 고난과 방황의 날에 옛적에 그녀의 것이었던 모든 귀중한 것들을. 그녀의 고난의 날, 방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글썄요, 슬픔에 관한 심리학 책에서는 안절부절 못함을 언급합니다. 슬픔에 빠지면 아무 것도 집중할 수 없고 마음이 계속 이리저리 맴돌며 다양한 유형의 상실에 대해 걱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방황은 더 나은 심리학 용어인 안절부절 못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에게 전리품으로 빼앗긴 귀중한 물건의 손실을 기념하는 것이 있습니다. 군인들은 땅이 함락되면 도시도 함락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많은 보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고, 이제 당신의 소유가 된 누군가의 손에서 롤렉스 시계를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정복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험하는 역전이 바로 약탈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의 백성이 적의 손에 넘어갔고 그녀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때 그들의 슬픔의 일부로 적들은 그녀가 몰락한 후 조롱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상실을 겪을 때 그 일부로 굴욕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굴욕은 고통의 부차적인 부분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조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도에는 일차적인 괴로움과 이차적인 괴로움이 함께 있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그리고 8절에 다시 나오는데, 예루살렘이 큰 죄를 범하여 조롱거리가 되었느니라. 그녀를 존경하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 자신도 신음하며 얼굴을 돌린다. 이 구절에는 이런 종류의 굴욕과 수치심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벌거벗음은 그녀가 가졌던 모든 것, 이 소중한 것들을 벗겨냈고, 그 결과 그녀는 너무나 벌거벗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설자나 멘토가 인정하는 바는 이것이 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픔의 요소와 함께 죄책감의 요소인 5절의 요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9절을 살펴보면서 사용된 비유가 있습니다. 그녀의 부정함은 그녀의 치마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래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몰락은 그녀를 위로할 사람이 아무도 없이 끔찍했습니다. 여기에는 비유가 있습니다.

옷을 더럽히는 것은 생리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히브리 의식에서 의식적 불순함을 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잘못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은유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8절의 시작 부분에 나오는 죄입니다. 그와 함께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그것이 더 나쁜 곳으로 인도할 것이며 결국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라는 최악된 행동의 결과에 대해 미리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도덕적 근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해가 발생합니다. 시온이 침입합니다. 오 주님, 나의 고난을 보소서. 원수가 승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크게 행동하고, 크게 행동하고, 자신의 무게를 던지는 것입니다. 적은 무게를 쏟았습니다. 바빌론이 너무 멀리 나아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새로운 궤적이 나타나는데, 바로 불만의 궤적입니다. 그건 불공평해요, 맵소사. 적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조금 나중에 논의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깊이 설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기도에는 불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화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적들은 그들의 모든 소중한 물건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열방이 그녀의 성소에 침입하는 것을 보았으며 그들은 당신이 당신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것은 또 다른 성경 참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언급된 내용은 신명기 23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기 본문에서 언급된 내용으로 명백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3장에는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은 십 대까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후손은 한 사람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문자 그대로 예배에 들어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서는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벨론 군대뿐만 아니라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을 포함하여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역 국가들을 포함한 지역 국가들로부터 온 파견병들이 의심할 바 없이 성소에 침입하고 있는데 지금은 예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고 훼손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9절 끝 부분에 있는 짧은 기도에서 나오는 시온의 이 불만은 10절의 화자에 의해 하나님을 거스르는 종교적 죄이자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설명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불만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인 11절에서는 보물을 음식과 바꾸며 귀한 것을 음식과 바꾸었습니다.

나는 1997년에 침례교 아카데미에서 가르치기 위해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보내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주변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가에는 귀중한 가보와 시계, 목걸이를 들고 있는 노부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러시아에게 경제적으로 매우 엄격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노인들이 익숙했던 사회 보장 제도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물을 뒤지고 음식을 사기 위해 돈을 벌려고 했습니다.

식량을 얻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소중한 것들을 버려야 하는 상황이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그 18개월 간의 포위 공격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시온이 침입합니다.

오 주님, 제가 얼마나 쓸모없어졌는지 보시고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이 고통의 이차적 요소입니다.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어난 일의 사회적 결과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나를 내려다보는 굴욕감. 그리고 이것은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무가치함을 하나님께 가져오면서 우리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연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시온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회중과 함께 나누며 결국 회중이 표현하게 될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져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만이 우리의 미래의 삶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12절부터 22절까지의 후반부를 읽을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공부해야 할 내용입니다.

애가서에 대한 강의를 하는 Dr. Leslie Allen입니다. 3부 애가 1:1-11 입니다.